

[국제]



원자바오 中 총리사의

“업무과중...5년 임기만으로 충분” 연임 포기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사의를 표명하고 내년 봄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임기를 맡을 뜻이 없음을 밝혔다고 홍콩 민과일보가 교도통신을 인용, 4일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올 가을 예정된 중국 공산당 17차 전국대표대회(17대)의 인사 향방이 훨씬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도통신은 원 총리가 업무가 과중한 총리직은 5년 임기만으로 충분하며 연임할 뜻이 없음을 주변측들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원 총리는 하

루 수면시간이 4시간정도밖에 안된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가장 든든한 권력 후원자인 원 총리의 사의 표명에 따라 최고 지도부의 물갈이 인사가 예정된 17대에도 작량은 변수가 나타났다.

아직까지 후임 총리를 맡을 유력한 인사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원 총리가 계속 총리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다른 자리로 이동할 공산도 적지 않다.

원 총리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직

은 계속 유지시키되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으로 자리를 바꿔주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이 경우 17대에서의 상무위원단 인선은 5년뒤인 2012년 18대의 후임 총리 인선을 가능할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원 총리는 지난 2002년 가을 16대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발탁된 다음 이듬해 총리가 됐으며 후 주석이 지속적인 권력기반 강화 포석에 따라 원 총리는 연임이 가장 유력한 상무위원으로 꼽혀왔다. 원 총리가 자리

에서 물러나게 되면 2일 사망한 황취회 위원으로 자리를 바꿔주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이 경우 17대에서의 상무위원단 인선은 5년뒤인 2012년 18대의 후임 총리 인선을 가능할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원 총리는 지난 2002년 가을 16대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발탁된 다음 이듬해 총리가 됐으며 후 주석이 지속적인 권력기반 강화 포석에 따라 원 총리는 연임이 가장 유력한 상무위원으로 꼽혀왔다. 원 총리가 자리



중국 텐안먼(天安門)사태 18주년 기념일을 맞아 4일 오전 베이징 텐안먼광장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중국 전역과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연합뉴스

“텐안먼 사태 재평가·수감자 석방하라”

18주년 맞아 당시 시위 지도자들 촉구

텐안먼(天安門) 사태 18주년인 4일 당시 민주화 시위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일제히 텐안먼사태 재평가와 수감자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콩 언론이 4일 보도했다.

미국에 망명중인 당시 학생운동 지도자 왕단은 성명을 통해 “중국 당국이 계속 텐안먼사태 재평가를 거부하고 민주인사를 탄압하면 20주년이 되는 해에 전 세계에서 대규모 항의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독도’로 규정하고 중형에 처한 시민이 지금까지 베이징시 제2교도소에 수감돼 있다”며 “이들은 당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길거리에 나선 선량한 시민들로 이들이 정치범으로 대우받고 조속히 석방되도록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국을 거부한 채 줄곧 중국에 머물며 활발하게 활동해 온 학자 출신의 민주화 운동가 천쯔핑은 “많은 사람들이 텐안먼 사태를 잊은 것 같지만 조만간 텐안먼시위가 재평가될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中 70년대 지도엔 ‘長白山’ 아닌 ‘白頭山’

중국인 과거 천지(天地)의 분할 경계선을 표시한 지도에서 ‘장백산(長白山) 천지’가 아닌 백두산 지명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중국측이 천지의 분할 경계

선을 표시한 지도에 따르면 이 지도는 천지를 ‘백두산천지’로 표기하고 천지를 포함하고 있는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백두산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이 지도는 중국의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 있는 것을 한 독자가 입수해 연합뉴스에 제보한 것으로 한국의 변경사 전문가 양태진(64)씨는 “이 지도가 지난 1978년 5월 지린성 자연보호관리국에서 발간한 ‘자연보호’라는 책자 87쪽에 실려 있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연합뉴스

“독도 주권 불분명”

유엔, 한국 영토 인정 거부 국제 로비의 결과인듯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유엔이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라며 아직 주권이 결정되지 않은 암초로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 따르면 유엔 지도제작과가 운영하는 전세계 지도·지리 정보 자원 웹사이트(www.un.org/Depts/Cartographic/english/)에 들어가 ‘지리 자원·정보’의 영토 리스트를 클릭하면 139번 독도 문제가 나온다.

2006년 11월에 작성된 이 리스트는 독도를 리앙쿠르 록스로 표기하고, ‘주권이 결정되지 않은’(Sovereignty Unsettled) 지위로 설명하고 있다.

반크 박기태 단장은 “이같은 결과는 지난 2월 유엔에서 전세계 학생들에게 유엔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세계 국가 정보 웹사이트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유엔 지도제작과 의 독도에 대한 한국 주권 인정 거부는 독도를 강탈하기 위한 일본의 치열한 국제 로비의 결과”라면서 “전세계 지도 제작 사들에게 정확한 영토 정보의 기준이 되어야 할 유엔 지도제작과의 태도 변화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中 언론이 소개한 舊소련 공군 한국전 참전 비화

“미그-15機, 美 B-29 등 1천여대 격추

〈구소련 전투기〉

‘1.106 대 335’ 한국전쟁 당시 격추되거나 추락한 공군기는 미국이 1천106대로 소련 공군기의 335대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당시 미 공군이 한반도의 제공권을 장악하고는 있었지만 그에 따른 희생도 컸다는 얘기다.

이런 사실은 중국 인민일보사에서 발행하는 환구시보 지난 1일자 기사를 통해 소개했다.

책 내용에 따르면 소련 공군이 한국전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50년 11월8일, 이날 소련 공군의 미그-15 전투기는 지금의 단동 상공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미 공군 F-51기를 격추해 첫 전과를 올렸다.

당시 소련 공군은 미국과 전면

전으로 비화할 경우 제3차 세계대전일 발발할 것을 우려해 자국 조종사들을 중국인민지원군 군복을 입혀 위장을 시키고 조종사들간 교신도 중국어와 조선어(한국어)로만 하도록 특별 지시를 내렸다.

1951년 4월12일은 미소 양국의 공군사에 희비가 엇갈린 하루로 기록됐다. 미군은 후방 병참선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압록강철교와 주변을 폭격하기 위해 무려 72대에 달하는 B-29 폭격기와 호위 임무를 맡은 F-80 전투기 32대를 한반도의 북쪽으로 출격시켰다. 소련 공군도 이에 맞서 60대의 전투기를 발진시켰다.

약 40분에 걸쳐 치러진 공중전에서 소련 공군은 단 한대의 손실

도 없이 B-29 폭격기 16대와 F-80 전투기 10여대를 격추시키는 완벽한 승리를 거뒀으며, 미 공군사에 이날은 ‘검은 목요일’로 기록됐다.

이처럼 소련 공군이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당시만 해도 세계 최고의 전투기로 불렸던 미그-15 제트 전투기와 철갑도 뚫는다는 37mm 기관총을 보유하고 있었던 때문이었다.

그 결과 극동 주둔 미 공군은 전략 폭격 능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말았다. 이들 두고 신문은 “이 때문에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소련, 중국, 조선(북한) 등 3국에 원폭을 투하하겠다는 구상을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투자의 귀재’ 버핏, 美 대선 대박 터트릴까

힐러리·오바마 동시 베팅키로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민주당의 두 유력 차기대권주자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모두에게 ‘투자’키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두 주자 모두 ‘최초의 여성 대통령’,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관심을 끌만한 큰 매력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엇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버핏은 오는 26일 뉴욕에서 열리는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힐러리 의원의 후원금 모금행사를 주관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들은 3일 보도했다. 각테일 파티 형태로 열릴 예정인 후원회에서 제한된 수의 행사 티켓이 ‘젊은 금융가(Young Wall Street)’들에게 500달러에 제공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들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왼쪽)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3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맨체스터 소재 세인트 안젤름 대학에서 토론회 시작에 앞서 박수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될 예정이다.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는 법적 한도인 1천~4천600달러의 후원금을 기부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버핏은 아울러 클린턴과 경쟁관계에 있는 오바마의 선거 캠페인도 지

원할 계획이라고 미 언론들은 3일 보도했다. 버핏은 수개월 내 오바마 상원의원을 위한 후원금 모금 행사도 주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연합뉴스

“美 MD 강행팬 유럽 겨냥 미사일 재배치”

푸틴, G8 회담 앞두고 경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동유럽에 미사일방어(MD) 기지 설치를 강행할 경우 이에 맞서 러시아는 유럽을 겨냥해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

다면서 이는 핵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선진8개국(G8)정상 회담에 앞서, 지난 3일 모스크바 인근 그의 개인 농장에서 G8 회원국 주요 언론과 한 회견을 통해 “미국의

동유럽 MD 계획은 유럽에 새로운 군비 경쟁과 냉전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6일부터 8일까지 독일 하일리겐담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을 앞두고 푸틴 대통령이 한층 더 강력한 말로 이를 재차 비난한 것은 G8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간에 동유럽 MD를 둘러싸고 격돌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마술(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검정과 사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유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정서(정신)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차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 모 / 집 / 대 / 상 ※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게임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특강 개설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유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B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 교육기간 : 주1회 8주 2개월
★ 교 육 비 : 무료(미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 교육장소 : 롯데백화점앞 제일B/D 3층
★ 접수방법 :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수)

○신기한 1일 마술교실체험 유치원, 초·중등학생, 대면도장, 각·예능학원
○각종행사, 마술 출장공연, 어린이 관련행사, 동문회, 교회행사, 야유회
○어떤 행사라도 마술사가 신비하고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526-2500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제1회 시험 10월 14일 확정 -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취업 가능...

도로교통사고감정사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정 부기관이나 사고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의뢰를 받아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교통사고조사 전문가를 말한다. WTO가 입국 중 교통사고와 사망률이 각각 1.29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정부는 당시지각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진교통사고조사 문화화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

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전문가는 2-5년 이내의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규 고용창출에 대해 업계와 당국의 관심은 매우 크다. (참고: 사고발생 약21만건, 사상자 약34만명, 이의 신청분쟁 매년 수천건씩 증가, 이상 2005년 경찰청 발표)

시험과목으로는 교통관련법규 등 4과목 객관식과 실무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이면 합격이고, 응시자격은 만18세 이상으로 학력·경력·무관하다. 특히, 일반시험에 마땅한 수험교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응시자를 위한 교육원의 안내자료와 특별교육까지 준비돼 있어서, 국가공인 제1회라는 시험특성까지 감안하면 시험 첫해인 올해 유래 없이 많은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탄생될 전망이다.

상담문의 / (062)528-7788

- 자격인증기관: 경찰청
- 시험주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자료제공: 교통사고감정교육원

두메 21세기 식문화를 재창조 하는 젊은 기업

- 외식업계 15년 노하우로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을 드립니다.**
이·취임식, 창립기념식, 세미나, 회갑연, 피로연, 출장뷔페, 시세상, 도시락 등 기타음식행사
- 어머니 정성 그대로 담은 100% 순수 국내산 맛깔찬 김치!**
30여종의 다양한 김치 생산으로 홍콩, 대만, 일본 등 수출 2003, 2004 광주김치대축제 최우수상 수상
- 학교, 병원, 기업체, 관공서 등 위탁급식운영 및 식자재 납품**

두메외식산업(주) www.dumept.co.kr
두 메 김 치 (주) www.dumekimchi.co.kr
두메푸드시스템(주) www.dume1992.co.kr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401-2 TEL.(062)571-6000 FAX(062)571-6030